"나를 뽑아 주세요"

내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 291명 참가 신청

미드필더 지원 123명 최다…해외 유학파 14명

내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291명이 참가 신청을 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일까지 2008 신인 선수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중학생 3명, 고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44명,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중퇴, 재학 207명, 실업 선수 32명, 기타 5명 등 총 291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클럽 우선지명선수는 11명으로 전남 드래곤즈 4명, 성남 일화 3명, FC 서울과 울산 현대가 각각 2명씩을 지명했다.

전체 신청자의 포지션별 비율은 미드필더가 123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수비수 96명(33.0%), 공격수 56명(19.2%), 골키퍼 16명(5.5%) 등이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선수는 14명으로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10명), 독일(2명), 일본과 중국 각 1명씩의 순이었다.

신인 드래프트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3년 연속 지원자는 2명이었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청을 낸 선수는 22명이나 됐다.

첫 해 신청 후 한 해를 거르고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낸 선수는 2명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1982년 9월생인 정명호(서남대 2년 휴학)이고, 최연소 지원자는 1990년 1월에 태어난 조범석(신갈고 졸업예정)이다.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마포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데, 지명 순서는 올해 팀 성적과 관계없이 전 구단이 동일한 조건 밑에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드래프트를 통해 K-리그에 입단하면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봉에 제한이 있다. 연봉 상한선은 1순위 5천만원, 2순위 4천400만원, 3순위 3천800만원, 4순위 3천200만원, 5순위 2천600만원, 6순위 2천만원 등이다. 번외 지명은 1년 계약에 연봉 1천200만원이다.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구단이 4명까지 우선지명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3년이며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은 3순위 지명을 할 수 없다. 3년 계약을 하면 연봉 5천만-2천만원 내에서 합의 계약해야 하며, 1년 계약의 경우 연봉은 1천200만원이다.

드래프트 지원 명단은 연맹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성남 VS 포항 K-리그 챔프 2차전 11일 오후 3시 ■

"팀 운명 내 손에 달렸다"

성남 김용대·포항 정성룡

국내 최고의 골키퍼 대결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던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이 11일 오후 3시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성남 일화-포항 스틸러스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한 판으로 막을 내린다.

포항이 지난 4일 홈 1차전에서 3-1 완승을 거둬 1992년 이후 15년 만의 우승을 눈 앞에 둔 상황.

하지만 정규리그 1위이자 K-리그 최다 우승팀(7회) 성남이 결코 호락호락 물러설 팀이 아니라 포항으로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번 2차전은 양팀 골키퍼 김용대(28·성남·**왼쪽**)와 정성룡(22·포항·**오른쪽**)에게도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성남으로 이적해 K-리그 첫 우승을 맛본 김용대는 다음달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다. 군사훈련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광주 상무 소속이 된다.

K-리그에서는 계속 뛸 수 있지만 선수들의 드나듦이 반복되는 광주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일은 없어 보인다. 이번이 언제 다시 찾아올 지 모를 기회인 셈이다.

더구나 1차전에서 허망하게 세 골이나 내줘 팀이 위기에 몰린 터라 이번 2차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반면 2004년 포항에 입단한 프로 4년차 정성룡으로서는 이번 첫 우승 찬스다.

올림픽대표팀에서도 부동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해온 정성룡은 17일 치를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에 다시 뽑혔지만 다행이 챔피언결정전은 뛸 수 있게 됐다.

포항이 정상에 오른다 해도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남아 있어야 할 뻔 했으나 당당히 그라운드에 나서 우승에 한 몫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성룡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우승 기회에 경기를 뛸 수 있게 돼 너무 좋았다"면서 "성남은 지난해 정상에 오른 강팀이지만 우리도 자신감에 넘친다. 우리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고 우승을 확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2 샤라포바' 러시아 안나의 파워 서브

러시아의 안나 차크베타제가 7일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WTA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 중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대 신경섭 우승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

신경섭(용인대)이 2007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100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경섭은 7일 밤(한국시간) 인도 하이데바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아마자데 초바리(이란)를 허벅다리걸기 절반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8일 알려왔다.

이번 대회에서 금3, 은1, 동메달 7개를 따낸 한국은 일본(금 8)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선수들에게 가혹행위 파문

대학 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김광환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총감독이 선수들을 위협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6일 접수됐다.

지난해 8월 고려대 아이스하키부가 실업팀 안양 한라와 연습경기에서 지고 난 뒤 감독이 합숙소 근처 공터에서 땅바닥에 과자를 뿌려놓고 선수들에게 한 명씩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한 명씩 과자를 입으로 먹으면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학부모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대표로 진정서를 낸 학부모는 "아이들이 당한 일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참다 못해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광환 총감독은 "과자를 먹인 일은 있었지만 강제로 시킨 일은 아니었다. 내가 유리잔을 깨물었다니 미친 사람인가. 학부모들 가운데 진정서를 낸 사람 1명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준비중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주게

9일(금)

▲2007 SBS코리아투어 하나투어 챔피언십 2R(14 : 10·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2007 배구월드컵(여자부) 3라운드〈대한민국 : 쿠바〉(18 : 00·KBS N SPORTS)

▲2007 코나미컵 야구〈SK와이번스 : 중국〉(12 : 30·MBC ESPN) 〈주니치드래곤스 : 롯이라이온스〉(18 : 30·MBC ESPN)